

## 실패 중소기업 재기, 보다 쉽고 빠르게!

“한 번 위기에 빠지니 참 헤어 나오기가 힘들군요.” G중소기업 대표의 말입니다. G사는 훌륭한 사업 아이템은 많이 갖고 있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지만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1년 가까이 되고, 2,000만원이 넘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에 막막해졌습니다.

이제 G사는 보다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된 것입니다. 회생절차 초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실패중소기업이 빠르게 재기할 길을 열었습니다.



### •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도모해 혁신 경제 구축에 기여



#### 개선 전

회생절차 과정에 제1회 관계인집회가 필수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회계법인 등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함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동의 필요

#### 개선 후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생략 가능, 법원사무관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 가능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계류 중 (법무부 '14.6.제출)

## 휴·폐업 기업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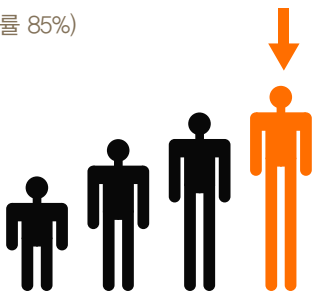
호프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2,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경기침체로 폐업했습니다. 2년 후 보증서 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했으나 휴·폐업기업은 보증제한대상이어서 기한연장이나 기보증 회수보증(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한 보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자금사정으로 일시적으로 휴·폐업했다 하더라도 경영 의지가 있고 재창업 가능성이 높은 휴·폐업기업에 대해선 지역재단의 관련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게 됐습니다. 기한연장이나 기보증 회수보증을 허용해 휴·폐업기업도 사업 재개나 재창업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 · 휴·폐업기업 보증유예 적용으로 재창업 가능성 유도 및 일자리 창출

(2013년 국세통계연보) 2011년 신규창업자  
99만 4,000명 중 84만5,000명 폐업  
(폐업률 85%)



#### 개선 전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이 휴·폐업할 경우, 해당기업은 보증제한 대상으로 기한연장이나 기보증 회수보증 불가

#### 개선 후

(휴업기업) “사업재개 계획서”를 접수해 현실성 있고 연체 등 부실이 없을 경우, 기한연장 등 지원  
(폐업기업) “재창업 계획서”를 접수해 예비창업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 등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방법서’ 개정 (중기청 '14.5월)

## 성실한 실패기업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 번의 실패로 재도전할 기회가 막히니 절망스럽습니다.” 실패를 딛고 재창업을 계획하던 C씨는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대위변제를 일으킨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기한 내 돈을 갚지 않아 보증기관이 해당 채무액을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리금 연체 등 보증사고로 대위변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실 실패자가 재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재도전 기회가 차단되곤 했습니다. 이에 보증금지 제한을 완화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게끔 규제를 바꿨습니다.



### • 성실실패자의 재도전 환경조성으로 역동적인 창업 환경 조성

지역신보 대위변제기업 : 23만7,058개 업체  
(’14.10월 기준)



#### 개선 전

보증사고로 대위변제를 일으킨 자에 대해 보증기관(지역신보, 신보, 기보)은 신규보증을 금지해 재도전 기회가 차단

#### 개선 후

대위변제자 중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에 대해 ‘성실실패자 재도전 특례보증’을 시행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성실실패자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시행 (중기청, ’14.5월)